

국민 여러분! 3조원 약값 인하의 미래를 아십니까?

과도한 충격으로 국내 의약품 생산기반이 무너져 우리 국민의 건강을 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국민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당장은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돼 외국 약에 의존하게 되면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약값 부담이 줄겠지만 2~3년 뒤부터는 오히려 몇 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 대만·동남아 등은 자국 제약기업이 무너져 외국 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아진 약값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정부는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환율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하위입니다.

대량 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됩니다.

연간 3조원, 그것도 일시에 약값을 인하하면 제약기업들은 30% 상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일으켜 8만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산업의 침체와 실직 여파로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900조 세계의약품시장의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제약업계는 글로벌시장 진출 준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17개의 신약개발 경험으로 3개의 토종 글로벌신약 개발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3조원의 약값을 인하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막대한 국부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 ▶ 제약산업은 FTA 최대 피해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3조원 약가인하가 더해지면 제약산업은 외국 약 판매상으로 전락합니다.
- ▶ 매년 배출되는 의·약학 대학생과 우수한 연구 인력의 설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 ▶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3조원의 약값 인하를 강행하여 제약산업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속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필수 기간산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희박한 무차별적 약가인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